

간화선 중흥을 위한 전국 선원장 초청 대법회 지상중계 ⑩

주제 : 한국선의 세계화와 생활선



“참 이심한 것은 모든 것을 놓아버리니까 거기서 공부 시작 되더군요.” 현웅스님은 화두 공부에 앞서 그동안 알고 있던 일을 알아나 깨달으려는 생각조차 방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내 안의 부처 등지고

지나하고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근본적인 것을 자각하지 못하기에 생활하고 불교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머리 속으로 이해하는 불교인이 많아져 이상으로만 치우치는 경향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상향에 묶여 있어서 생활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어요.

불교의 가르침은 인연법입니다. 물을 끓여 차를 마십니다. 그러면 차향이 나서 향기롭지요. 그것을 마시면 오름이 되어 나옵니다. 오름은 더럽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오름은 땅속으로 들어가 사라집니다. 그 물을 너무나 대지의 식물이 먹습니다. 강이나 호수의 물은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물은 비가 오면 다시 대지를 적시고 만물의 근원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의 성질이 변했습니까? 형태는 변했지만 그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까. 물이 땅에 스며들면 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안보이니깐 우리는 물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인의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무명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불성이 있는데 그 의식이 무명으로 덮여져 내 안의 불성을 등져 버리기에 어리석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는 생각이 안 일어나서 본성으로 돌아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연법을 설교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불교가 너무 교리적인 입장에 집착되어 있기에 불교가 불교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수행을 통해 깨달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 없는 것을 만들어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을 바로 보는 것이 ‘실정도’입니다. 그렇게 보면 선과 교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선을 가르칠 수 있을까가 최근 저의 화두입니다. 저는

## 살아있는 선은 생활속에서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20년간 여러 선방에서 수행을 했고 이후 이후 서양에서 20년간 포교하며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왜 이 문명사회에서 불교가 필요한지 확연히 느꼈습니다.

한국은 방향도 없이 서양의 물질문명의 그림자를 쫓고 있고 물질만능주의를 배우고 있지만 서양에서는 물질에 대한 회의로 그 해답을 불교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서양을 향해 무조건적인 수용을 하고 있는 사람과 한편으로는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처가 자신 안에 있다고 설명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활속에 불교가 있음을 확연하게 경험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중생이 사는 생활이 불교를 전혀 안 떠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선 불교는 현실과 괴리되어 뒷방에서 앉아 혼자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쉬운 방법을 찾기 위해 제3수행법이라고 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 현웅 스님

지상 백고좌

(美 버클리 육조사 주지)

참으로 큰 법문은 법상에 있는 법사에게 듣는 것이 아니고 일상 생활 속에서 듣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끼리 이야기 할 때나 시장 바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도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교의 진수이고 가장 큰 법문인데 우리는 그런 곳에서 법문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문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안에 들어와 조계사에 와서 법문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식 구조가 고정 관념에 의해 막혀있으므로 관념의 뿌리가 비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의식이 열려 그때서야 눈과 귀가 열려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물었습니다. 옛 선사가 말하기를 “너에게 주장자가 없다면 빼앗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한참 있다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이 와 닿아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알쏭달쏭 하다는 분도 계시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네 안의 부처를 만나려거든

## 내가 알고있는 불교 버리면 내 안에 부처 있음을 직관

네가 알고 있는 부처를 잊어버려라 고 말합니다. 여러 경전을 보고 공부를 해야 불교를 알 텐데 왜 불교를 잊어버려라 고 말하는지 궁금할지 모르나 이것이 선으로 바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증득하고 나서 일체 중생을 돌려 보니 모든 중생이 자기와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 안의 부처를 등지고 바깥에서 자기 자신이 만든 부처를 경령하려고 합니다. 거기

## 인연법 알면 나를 집착않게 돼

서 병통이 생깁니다. 그리고 길이 막히는 것이죠. 그래서 옛 선사들은 너에게 주장자가 없다면 빼앗으리라 고 하셨던 겁니다.

불교는 자기 관념이 지워져 버릴 때 불씨가 나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기 않아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알아 필요한 것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내 안의 자성불을 바로 경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부처인지도 모르고 헛것을 좇아다니기에 선사들은 허상을 뺏어 버리겠다는 뜻으로 주장자의 비유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 주장자가 무엇입니까?

선이라는 것은 면도칼 보다도 날카롭게 마음의 어리석음을 베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언어만 달랐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선과 교를 구별하는 자체가 잘못된 일입니다.

<전수경>에 ‘아약향도산(我若向刀山) 도산자취절(刀山自催折) 아약향화탕(我若向火湯) 화탕자소멸(火湯自消滅) 아약향지육(我若向地獄) 지육자고갈(地獄自枯渴)’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칼산 지육에 내가 가면 칼산이 절로 무너지고 화탕지육에 가면 화탕이 절로 없어지고 모든 지육에 가면 지육이 절로 말라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법회 때마다 <전수경>을 그냥 외우지만 선승에게는 그대로 선법문입니다. 내 안에 쌓여 있는 어리석음을 없애고 내가 주인임을 깨닫게 되면, 칼산을 만나면 칼산이 없어지고 지육도 극락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어있음을 경험하여 칼산이 비어있음을 만나면 그 칼산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지육 또한 그렇지요. 내가 만나는 모든 경계가 다 그렇습니다. 공부를 해서 내가 나의 참 주인이 되면 동대문 시장에 가 있어도 시장 상인들이 불보살이 출주는 집단으로 보이게 됩니다. 시골벽적인 시장이 아니지요. 내가 가는 곳이 극락이고 그 세계가 바로 불국토이

선사들은 이 어리석음을 빼앗기 위해 주장자 설법을 하신 겁니다.

굳이 12건기 ‘안이비설신’을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쉽게 생활속에서도 인연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연법을 알게 되면 나를 집착하지 않게 되고 어떤 순리를 따르기에 자기 주장을 안 하게 되고 나라

## 스승 믿어야 의정꿈을 힘 생겨

### ‘문고 답하기’ 현장

▲선수행을 많이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은 곧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많고 적음이 어디 있습니까? 불교는 바로 들어가야지 멀리 집착으로 들어가면 안됩니다.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바로 믿는 것이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많이 한 다, 많이 했다는 생각은 선과 멀어지는 것이므로

로 생각을 바꾸세요.

▲저의 경우 화두 참구를 하다보면 화두 열 불이 되는 것 같고 사랑분별에 떨어집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행할 때 그런 의심이 들 때는 내가 혹시 혼자 공부하고 있지 않나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절대 혼자 불되고 있으면 공부가 안됩니다. 스승을 바로 믿고 행해야 합니다. 스승에 대한 믿음은 단순히 스승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선사들과 불조를 믿는 길로 연결됩니다. 그래야 의정을 꿀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 육 법 등 (六法燈)

의장등록제 2002-33243호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 특징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시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이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 활용 범위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개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소 : 경기도 포천시 포천읍 설운리 290-1  
 전화 : 031)541-1417 / 팩스 : 031)541-1419

**(주)동원전기** 중판 및 대리점 모집

## 스님 불자님께 드리는 편지

### 신제품 식물성 양초

실용신안특허 0293571호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저희 삼환양초에서 식물성 양초를 개발(실용신안특허) 공급합니다. 지금까지 양초는 석유에서 추출한 파라핀 왁스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양초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그을음, 냄새 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고심하던중, 동남아 모처에서 생산하는 팜(식물성 아자알메)왁스로 양초를 만들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0% 식물성 양초를 만들 수 없지만 가까운 시일내 100% 식물성 양초를 만들 수 있도록 삼환양초 가족일동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스님, 불자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기다립니다.

**‘이제는 건강을 생각하여 양초도 선별하며 사용할 때 입니다.’**

◆선진국 소비자들의 양초선별 방법

1. 심지가 면사로 되어있는지<국내제품 면사로 제조>
2. 원료가 식물성 인가

※ 미국, 구라파 등지에서는 콩, 옥수수 등 식물성으로 만든 양초 선별사용

- 1) 전사지양초(오랑이, 용, 반야심경) - 지름 7.5cm x 45cm
- 2) 상용(용이마주보고 있음) - 지름 8.3cm x 30cm
- 3) 전사지(용 - 지름 9.2cm x 31cm
- 4) 전사지(반야심경 - 지름 9.2cm x 31cm

- 5) 원기둥 양초 - 지름 7.4cm x 29cm

전사지, 반야심경, 연화, 용, 호랑이, 무지개, 금박, 오랑이, 용

상기제품의 모든 양초를 만드는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제품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제품설명서를 무료로 우송하여 드립니다.

조계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4월25일-조계사 대웅전)

# 바깥에서 무얼 찾나

그러나 올바른 삶이 있는 선은 생활속에서 있는 것이지 이것을 떠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은 밥 먹을 때나 시장 갈 때나 친구를 만날 때나 항상 그 자체가 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혼자 참선할 때도 시끄럽다거나 방해된다 주위를 탓하지 마세요. 그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즐겁고 협소하고 너그럽지 않고 융통성이 없다면 불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부처를 붙들고 있는 한 그것이 내 마음을 가려서 조그마한 불교를 만듭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부처를 버리면 내 안에 부처가 있다는 사실을 직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드러난 눈으로 세상을 보고 듣고 손으로 일을 나누면 그것이 참 불교입니다.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선에 주목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한 시간씩 앉아 참선하는 것 이외에 특별히 수행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 속에 진리가 있음을 경험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예전에 저도 개인적으로 해인사에서 하루 12시간에서 20시간까지 정진을 10여년 동안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부 가 늘지 않고 어렵게만 느껴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화두도 버리고, 깨달으려는 생각도 버렸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모든 것을 놓아버리니까 거기서 공부 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 수행은 스승믿는 마음서 시작

수행은 스승을 믿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스승을 믿어야 내 생각을 안 내게 됩니다. 생각을 안 내다 보니 아성이 없어지면서 공부할 할 수 있는 기원이 됩니다. 거기서 화두를 조금만 해도 터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불성이 있으니 나도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혼자 앉아서

## 현웅(玄雄) 스님

1967년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 68년 사미계를 받았다. 71년 봉토사 극락암에서 율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20년간 전국의 제방선원에서 경보, 성철, 구산, 전강 스님을 모시고 수십 안자를 성만했다. 1986년 미국 시애틀에 돈오선원을 창건한 은사스님의 유지를 이어 현재 미국 버클리 육조사에 주석하며 해외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5월 서울 가회동에 육조사를 창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참선을 지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선문잡지<불지 않는 집문> (민족사 파냄)을 출간하기도 했다.

수행합니다. 그러면 절대 이 공부가 늘지 않습니다. 스승을 믿어 버리면 항상 스승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감히 싶던 생각이나 알음 알이를 낼 수 없게 됩니다.

스승에 대한 믿음에서 내 안의 썩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모두 깨달음의 씨앗이 있는데 그것이 나올



'생활속에 선이 있다'는 현웅 스님은 일상 속에서 진리를 경험하려고 당부했다.

## 서양에선 정신적 만족 불교서 찾아

려고 하면 관념의 생각들이 뭉개버립니다. 그래서 부처의 썩이 나오려 하다가 뭉개지고 뭉개지고 하기를 수 천번 같은 실수를 반복해도 살아 왔던 것입니다.

전강 스님이 수원 용주사에 계셨을 때 저는 큰스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스님은 매일 새벽 법문을 하셨는데 하루는, 육조하는 스님과 남악회향 스님이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다'는 말을 인용했는데 제가 그 말에 그냥 딱 놓아지더라고요. 그리고 20년간 제방에서 공부했던 것을 돌아보니깐 눈물이 핑퐁 나더라고요. 전강 스님께 여쭙 보니까 공부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아침에 앉아 있다가 어느 날 새벽에

물 향아리 밭이 깨져 나가는 것을 경험 했습니다. 거기서 변화가 오테라구요. 내가 공부할 이렇게 해야겠다, 보임을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도 아니었는데 생활 속에서 변화가 와서 아리석음이 자각으로 바뀌어더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잘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나고 그러면서 성격도 고쳐지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세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나니깐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적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스승을 믿으세요. 제 경험으로는, 믿음이 없을 때는 스승의 법문이 내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았지만 믿고 난 뒤부터는 하찮은 말이라도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얹어 버리고 아مان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만이 없어지니 마음속의 불성이 되살아나 의심이 생기고 화두를 들면 의심이 끊어져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기에 생활 속에 불교가 다시 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불법 아닌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매일 새롭고 생활의 변화가 와요. 날마다 변화가 오기 때문에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선사들의 어록을 한번만 봐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지만하지 말고 꾸준히 수행하세요. 그러면 세상 모두가 나와 연결이 되어 있고 내가 부처라는 믿음이 확연해 질 것입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김두식 기자 · 사진=백재환 기자

**“법문, 테이프로 들으세요”**

현웅 스님의 법문을 비롯해 2월 15일~5월 9일 진행되는 선원장 초청법회의 법문을 테이프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문의=조계사(02-732-2115), 여시아문(02-737-8881)

법회 동영상 총계  
www.jogyesa.org  
www.buddhanews.com

##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18>



### 지팡이보다 못한 불효자

자식들은 아버지가 견재할 때는 고마운 줄 모르고 자내다가 세상을 뜨고 나면 불효를 후회한다. 자식을 낳아 길러 봐야 부모의 은혜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어머니는 아이를 회임하면 아이의 건강을 위해 몸이 아파도 약을 먹지 않고 참는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생각하기 때문에 음식이나 몸가짐을 조심한다. 출산 때 엄청난 고통을 받아 견딘다. 갓난아이의 풍오줌을 더럽다고 여기지 않고 치운다. 맛있는 음식을 자식에게 먼저 먹고 자식이 병 나면 부모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듯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희생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모정은 유별나서 죽을 때까지 자식을 걱정한다. 자식의 교육을 위해 부모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 그럼에도 부모에 효망의 마음을 잊고 소홀히 하는 자가 많다. 장수 사회가 되었지만 효심이 부족해 부모가 있어서 불편해 하며 늙은 부모를 내버리는 일까지 있으니 착잡한 심경이다. 부모는 항상 자식을 생각해도 자식은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효자를 바로 잡아 준 이야기가 <집이함경>에 전하고 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은 아버비를 버렸네. 늙은 말처럼 쓸데가 없다 하며, 보리껍질 먹이까지 빼앗았으니, 아들은 젊지만 아버지는 늙어,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을 쪼다네. 구부러진 지팡이가 제임이요, 아들은 사랑할 것 못되니, 나를 위해 사나운 소 띠아주고, 험한 곳을 면하여 편안케 해주며, 사나운 개를 물리쳐 주고, 어두운 곳에서는 나를 불드네. 깊은 구멍이나 빈 우물이나, 풀이나 나무나 가시밭을 피하고, 지팡이의 위력을 의지한 덕택에, 곳곳이 서서 넘어지지 않는다네.”

바라문은 이 계승을 기억한 뒤에 바라문 대중 가운데로 돌아가 그 아들을 두고 대중들에게 위에서 말한 계승을 읊었다. 그 아들은 부끄러워 하며 곧 그 아버지를 안고 집으로 들어가 몸을 목욕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힌 뒤에 정성스럽게 모셨다.

다행히 오늘 살펴본 경전에 나오는 아들은 불효의 죄를 뉘우치고 연로한 부친을 잘 받들게 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인은 소비만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기 마련이다. 특히 경제적인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는 자식들은 자신의 부모조차도 모시지 않으려고 한다. 불효자를 부처님은, 인간의 탈을 쓴 마귀라고 부를 정도로 꾸짖었다.

## “부모의 은혜 천만년 공양해도 못 갚는다” 불효자, ‘인간의 탈을 쓴 마귀’라 꾸짖어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 부처님은 이른 아침에 가사를 입고 발우를 가지고 사위국에 들어가 결사하셨다. 이때 나이 많고 몸이 쇠약한 어떤 바라문이 지팡이를 짚고 그릇을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결식하고 있었다.

부처님은 밥을 빌고 있는 노인들 보고 물었다. “당신은 나이도 많고 몸도 쇠약한데 왜 지팡이를 짚고 발우를 들고 집집마다 다니며 결식하고 있습니까?” 노인 바라문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집에 있던 재물을 아들에게 모두 물려주고 며느리를 들인 뒤에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그릇을 들고 집집마다 다니며 밥을 비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연로한 바라문을 불쌍히 여겨 말씀하셨다. “당신은 내게서 계승 하나를 받아 외위대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당신의 아들을 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 외출 수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서는 계승으로 말씀하셨다. “아들을 낳고선 마음이 기뻐고, 아들을 위하여 재물을 모았으며, 또 아들 위해 며느리를 들인 뒤에 나는 그것 다 버리고 집을 나왔네. 외지고 광범한 시골 아이는, 그런 아버지를 등지고 피하니, 사람의 얼굴에 나찰의 마음어네, 그는 늙

부처님은,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큰 지를 가르치고 있다. ‘부모의 은혜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여도 다 갚을 수 없다. 자식이 온갖 어찌에 아버지를 얹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얹은 채 천만년 동안 웃, 음식, 약 등으로 공양하여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부모님 덕분에 이 세상에 태어나 해와 달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부모의 은혜는 막중하니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항상 공양하고 공경하여야 한다.’

부모의 은혜를 갚기 어렵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이고 불효자가 많은 것도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현대사회에선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핵가족화 되면서 자식을 많이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직업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기 생활에 쫓겨 마음 속으로는 부모에게 효행하고 싶어도 여러 장애로 아버지 시중을 들 여유가 없는 경우도 있다. 자주 빚지는 못하더라도 자주 전화로라도 안부를 여쭙는 것이 도리이다.

부모가 견재해 계시면 진실으로 효행을 다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해 드리는 것이 불교인의 진정한 효라 할 것이다.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건강도지키는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 힘으로 건강을  
금강염주를 받거나 거실에 걸어놓으면 금강의 강한 기와 93%의 생육광선, 음이온등이 발산되어 현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 O.A사무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차단하며 도심의 좋지 않은 공기 환경속에서 건강이 약해지는 스님 및 불자들의 건강을 도와드립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며 피로회복, 신경안정, 스트레스해소, 혈액순환 등에 효과 있는 세계 유일의 금강염주입니다. 밝은 지혜와 금강의 강한 힘이 발산하는 금강염주는 기도 정진시 입념부야 하면 부처님 가피로 고시준비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뜻을 이룰수 있는 신비의 금강염주입니다.

2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망이 발견되며 세계 유일의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원로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향을 포기하고 참선 안개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금강염주는 점안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요일 공휴일도 상점합니다. 신용카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 12단주와 108염주 1set 가격 195,000원  
\*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택배로 동봉소포로 전국 어디나 받아 편편성을 하고 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중구구 관훈동 177 1층 B/A 406호

**사찰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견전지용 초 • 정사소통 및 손잡이대

**등 간 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 (정품)**

- ▶ 불계 고수전구, 인지전구
- ▶ 용류 : 3W, 5W, 10W
-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월라멘트(예벳 월라멘트)로 빛이 밝으며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견전지용 초**

- ▶ 정사소통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소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탐들이, 방등)등 바람이 불어도 깨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등에 적당 합니다. (견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귀입문의 (031)986-0277-8  
귀입문의 (032)582-6235-6  
http://www.bulje.co.kr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귀입문의 (02)2266-2634 (02)2263-2638  
011630-7092